



# 특허 관련 IT 업계 동향 및 시사점



정재관  
특허지원센터장

## 1. 서론

특허와 관련하여 국내외 IT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IT산업은 미국경제의 호황을 10년 이상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전세계의 산업구조를 새롭게 재편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례적으로 일본 총리관저에서 직접 IT 관련

산업 정책 및 육성방안 등을 담당하면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IT 분야의 국제동향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IT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및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IT분야 특허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국내 IT기업의 특허소송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2. IT분야 업계 동향

### (1) 한·중·일 IT분야 특허동향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IT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등 5대 기업의 특허출원은 전체의 35.6%(1만4천507건)를 차지해 특허출원의 상당부분을 주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삼성SDI 등 다출원 5대 기업들의 출원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1%나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5월까지 5천942건의 특허를 출원해 2004년보다 30.1%(1천374건)가 늘었으며 LG전자 53.1%(1천891건), 삼성SDI 31.6%(429건), SK텔레콤 40.7%(151건) 등도 대폭 증가했다. 반면 하이닉스반도체는 33.9%나 감소했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 증가는 국내 주요기업들이 특허권의 확보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무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특히 IT 분야 기업들이 특허경영을 선포하는 등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중국 또한 IT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의하면, 홍콩을 포함하여 중국이 2005년에 출원한 국제 특허의 수는 전년대비 43.7% 증가한 2,45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IT 관련 분야로, 상위 10개사가 IT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특허, IT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중국의 과학기술 진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중소기업의 특허활용 지원강화 및 특허의 증권화로 자금조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유망기술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유 지적재산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증권화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 (2) 국내 IT기업의 특허소송

IT분야에서의 특허소송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허분쟁의 대부분은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2003년에 집계된 특허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하이닉스반도체·LG필립스LCD 등 주요 IT기업들이 다수의 외국 기업과 특허 분쟁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시사점

중국 내 PMP시장이 2007년부터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추적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해외 선진업체는 후발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책 마련은 절실하다. 우선, 경쟁업체에 관한 기술동향이나 특허정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사에 장해가 될 기술에 대한 권리화저지에 대책 강구 및 라이선스 검토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부서에서 침해유무의 판단, 회피대책 또는 라이선스 교섭 등을 정확히 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의 실시 또는 신제품의 판매에 있어, 특허부서와의 자료 공유 및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한 후발업체의 견제 및 해외 선진기업의 특허공세에 대한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IT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미래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해외특허 무료서비스 본격 실시

연구개발에 있어 해외특허의 활용이 보다 더 손쉬워 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무료검색서비스인 KIPRIS(www.kipris.or.kr)를 통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 특허문헌 전문(全文)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KIPRIS 서비스는 그동안 해외 특허문헌의 경우 그 초록(요약)만을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해외 특허문헌에 대한 수요가 급증 KIPRIS 해외특허 검색건수는 '04년 210,624건에 이어 '05년 246,53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35,906건)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 2월 해외특허 전문(全文)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게 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로서 해외특허 전문검색에 있어 각 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각각 접속해야 하는 이용상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홈페이지마다 상이한 검색방법, 낮은 접속 속도 등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PRIS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외 특허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되어 특허정보 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KIPRIS 접속방법이 훨씬 간편해진다. 그동안 로그인을 통한 회원접속을 하여야만 이용 가능했던 KIPRIS 검색서비스를 금년 3월부터는 로그인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특허청은 또한 손쉬운 접속의 일반검색서비스와 함께 개인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나 일부 부가서비스는 기존의 회원접속을 유지해 한층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더욱 더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KIPRIS 영문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 특허청 심사관의 KIPRIS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나아가 한국특허의 이미지 제고 및 보급확대에 기여하여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